신지애, KIA차와 인연 맺을까

LPGA KIA클래식 3R 15언더파로 단독 선두
시즌 첫승 눈앞… 디펜딩 챔프 서희경 컷 탈락

'지존' 신지애(23·미래애셋)가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첫 우승을 눈앞에 뒀다.

신지애는 2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의 인더스트리 힐스 골프장(파73·6700야드)에서 열린 KIA 클래식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3타를 줄였다.

중간합계 15언더파 204타를 적어낸 신지애는 이틀째 선두를 지키며 올 시즌 첫 우승을 향해 순항했다.

산드라 갈(독일)이 한 타 뒤진 2위(14언더파 205타)로 쫓아왔지만 2008년 LPGA 투어에 데뷔한 뒤 3년 동안 우승이 없는 선수여서 신지애의 우승 가능성이 커졌다.

신지애는 전날 2라운드에서 언더파 기준으로 4타차 1위로 경기를 끝냈지만 폭우로 인해 지연된 경기가 재개된 뒤 갈이 맹추격을 벌였다.

갈은 2라운드를 끝낸 뒤 신지애에 1타차로 따라붙었고 3라운드 들어서는 정교한 퍼트를 앞세워 한때 2타차로 앞서 나가기도 했다. 2번홀(파4) 보기로 주춤했던 신지애는 8번홀까지 버디 퍼트가 홀을 외면해 속을 태웠다. 하지만 신지애는 9번홀(파4)에서 3.5m짜리 버디퍼트를 홀에 집어넣은 것을 신호탄으로 10번, 11번홀(이상 파4)까지 3개홀 연속 버디를 잡아 갈과 동타를 이뤘다.

15번홀(파3)에서 갈이 보기를 한 사이 신지애는 1.5m 버디 퍼트를 성공해 2타차 선두로 나서며 단숨에 전세를 뒤집었다.

신지애와 갈은 17번홀(파4)에서 똑같이 버디를 잡아 2타차를 유지했지만 18번홀(파5)에서 신지애의 실수가 나오면서 1타차로 좁혀졌다.

신지애의 티샷이 왼쪽 워터해저드로 날아간 것. 1벌타를 받고 4타 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올린 신지애는 4m가 넘는 파 퍼트를 넣지 못해 갈과의 타수차를 더 벌리지 못했다.

최나연(24·SK텔레콤)은 8언더파 65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공동 21위에 단독 3위(9언더파 210타)로 도약했다. 김인경(23·하나금융그룹)은 4위(8언더파 211타)에 올랐고, 위성미(22·나이키골프)는 공동 8위(5언더파 214타)로 3라운드를 마쳤다.

한편 지난해 챔피언 서희경(25·하이트)은 공동 80위(4오버파 150타)에 그쳐 컷 탈락했다. /연합뉴스

베텔, 2011 F1 개막전 우승

2년 연속 챔프 시동

세바스티앙 베텔(독일·레드불 레이싱·**사진**)이 '2011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Formula 1 World Champion ship) 시리즈 개막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베텔은 27일 호주 멜버른의 앨버트 파크 서킷에서 열린 시리즈 1라운드 경기에서 5.303㎞의 서킷 58바퀴(총길이 307.574㎞)를 1시간29분30초259에 달려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았다.

지난 시즌 챔피언인 했던 베텔은 지난 시즌 마지막 2개 대회인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대회를 연달아 우승한 데 이어 올해 첫 대회까지 휩쓸어 3회 연속으로 우승을 독식했다.

전날 열린 예선에서 폴 포지션으로 1위를 차지, 맨 앞에서 출발한 베텔은 레이스 초반 예선 2위였던 루이스 해밀턴(영국·맥라렌)에게 잠시 선두 자리를 내줬을 뿐 이후로는 끝까지 선두를 유지하며 포디움 맨 위에 우뚝 섰다.

2위 해밀턴에 무려 22.297초나 앞선 압도적인 승리였다. 지난해에만 5승을 거둔 베텔은 지금까지 모두 63차례 레이스에서 11번이나 우승을 차지하며 역대 최연소 F1 챔피언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이날 베텔의 평균 속도는 시속 206.184㎞였다.

러시아 출신인 비탈리 페트로프(로투스 르노 GP)의 상승세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베텔에 30.560초 뒤진 3위로 들어왔지만 시상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향인 호주에서 팬들의 응원을 업고 달린 마크 웨버(호주·레드불)는 5위에 그쳤다.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독일·메르세데스)는 레이스 도중 기권했고 지난해 코리아 그랑프리 우승자인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는 4위로 첫 라운드를 끝냈다.

다음 레이스는 4월8일부터 사흘간 말레이시아 세팡 서킷에서 열린다.

/호주 멜버른=김지을기자 dok2000@

'요정' 손연재 국제대회 개인종합 12위

아시아 선수 중에선 '톱'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17·세종고)가 올해 처음으로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개인종합 12위에 올랐다.

손연재는 2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페사로의 아드리아틱 아레나에서 끝난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 시리즈 대회에서 후프(26.175점), 볼(26.725점), 곤봉(26.175점), 리본(25.750점) 4종목 합계 104.825점을 획득, 참가 선수 47명 가운데 12위를 차지했다.

러시아, 불가리아, 폴란드 등 리듬체조 강국 선수들이 상위권을 휩쓴 가운데 손연재는 아시아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건 안나 알랴브에바(102.900점·카자흐스탄)와 율리아나 트로피모바(102.450점·우즈베키스탄)보다도 2점 가까이 높은 점수를 받아내며 아시아 톱으로 우뚝 섰다.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 올해 판도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이번 대회에서 손연재가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9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상위권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열릴 세계선수권대회에는 2012년 런던올림픽 개인종합 출전권이 걸렸다. 한 나라에서 2명씩만 올림픽 개인종합에 출전할 수 있고 손연재는 15위 안에 입상하면 런던행 티켓을 손에 거머쥘 수 있다.

한편, 손연재는 볼 종목에서 7위를 차지, 28일 결선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김달은·고은 자매 金·銀

한라배 전국수영선수권

광주 인어들이 제6회 제주 한라배 전국수영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과 2개의 은메달을 수확했다.

김달은·고은(이상 하이코리아) '쌍둥이 인어 자매'가 지난 26일 제주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한라배 전국수영대회 평영 50m 결승에서 나란히 터치패드를 찍으며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중부와 여고부에서도 금메달이 나왔다.

광주체중 남상지(3년)가 여중부 자유형 400m에서 4분27초46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고부 접영 200m에서는 광주체고 전이연(2년)이 2분15초11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市체육회 '장재근 육상교실' 운영

'장재근과 함께하는 신나는 육상교실'이 열린다.

육상교실은 광주시체육회가 주최하며 광주 소재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모집기간은 내달 7일까지며 1차 운동테스트와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30명을 선발한다.

수업은 아시안게임 200m 금메달리스트인 장재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진행하며 목·금·토요일에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체육회 홈페이지(www.gwangjusports.or.kr)나 전화(062-604-17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신여고 정구 전국대회 싹쓸이 우승

단체전 이어 개인 단·복식 정상

동신여고(교장 정태환)가 제32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우승을 싹쓸이했다.

한국 여자 정구의 기대주 동신여고 김지연(2년)이 문경시민정구장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단식에서 경북관광고의 김인정을 3-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4일 열린 단체전 단식전에서 승리를 챙기며 동신여고의 우승을 이끌었던 김지연은 51명이 출전한 개인전 단식에서도 1위에 오르며 실력을 발휘했다.

25일 개인전 복식 결승에서는 박은지-최미란(이상 3년)조가 경북관광고의 이선경-고은지 조를 4-3으로 제압하며 우승 시상대에 섰다. 3-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박은지-최미란 조는 파이널 게임에서 7-2로 이기며 우승했다.

4강전에서는 자매간의 맞대결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박은지는 4강에서 친동생이자 학교후배인 박은희(1년)와 대결을 벌여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홍은정과 호흡을 맞춘 박은희는 동메달을 가져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탱크' 최경주 불꽃샷 주춤

PGA 인비테이셔널 3R
선두와 7타차 공동 11위

'탱크' 최경주(41·SK텔레콤)의 불꽃 샷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셋째날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최경주는 27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골프장(파72·7321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는 2개에 그치고 더블보기 1개, 보기 4개를 쏟아내며 4오버파 76타를 쳤다.

전날 2라운드에서 8언더파 64타의 불꽃타를 뿜어내며 공동 2위까지 올랐던 최경주는 중간합계 4언더파 212타로 공동 11위까지 떨어졌다.

2타를 줄인 마틴 레어드(스코틀랜드)가 중간합계 11언더파 205타로 단독 선두를 지켜 최경주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7타차를 따라잡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재기를 노리는 타이거 우즈(미국)의 성적도 좋지 않았다. 우즈는 6번홀(파5)에서 200야드를 남기고 친 두번째 샷을 홀 4m 옆에 떨어뜨린 뒤 이글로 연결시키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우즈는 이글 이외에도 더블보기 1개, 보기 4개, 버디 2개 등 어수선한 스코어카드를 작성하며 2타를 잃어 중간합계 1언더파 215타로 공동 29위까지 떨어졌다.

6언더파 66타의 맹타를 휘두른 위창수(39·테일러메이드)는 공동 15위(3언더파 213타)로 순위를 끌어올렸고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은 타수를 줄이지 못해 공동 58위(3오버파 219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금남로5가 대로변 대지496 건평872 공시지가53억2천 임대소득에 적합 53억2천
- 서동 월산파출소부근 버스도로 대지141평 공시지가 4억5천 건물은 2층과 3층 두동있음. 감정5억6천선 대출1억7천 담보제공가능 2억8천5백
- 화순 이양면 소재지 국도접 주거지역 596평 창고·공장적합 대출5천5백 공시지가에 매도8700만원
- 화순읍 대지 79 건평 210 공시가 4억 매도 4억5천
- 금남로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 12억4천 매도11억8천
- 동구 6차선 도로와 3차선도로코너 상업지 589평 건평은 637평 공시지가 27억3천 매도 23억
- 북구청 부근 대지207 건평420 공시지가7억 매도8억5천
- 북구 아파트단지 목욕탕. 골프연습장등 대지440 건평 507 공시지가 9억7천 은행5억4천 전세8700 월280만원 사우나, 헬스, 에어로빅은 직영함. 교환도가능 12억5천
- 광주역앞 원룸 대지108 건평383 감정11억8천 매도 6억7천
- 황금동 4층 상가주택 대지 68 건평 145 매도 3억3천
- 충장로5가 3층건물 대지20평 1층은한복집. 금방등적합 2억
- 화순읍 삼천리 주거지역 587평 공시가 3억4500매도 2억6천
- 주유소 화순읍 땅 1118평 공시지가 10억8천 매도15억5천

■매도·교환
- 화정동 4거리 6차선 도로변 준주거 480평 매도16억
- 화순군 동면 서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좋음 1억7500
- 남평읍 교원리 버스도로접 211평 주택과공장 1억6천8백
- 산수동 호남맨션옆 2종주거지 220평 사찰.빌리적합 2억7천
- 하남공단 도천동 자연녹지 506평 공장적합 3억8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근린시설	· 서구 광천동 토지305평 건평230평 2층건물 감정가 9억5천만 최저가 6억6천만 · 광산구 월계동 토지110평 건평375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13억 최저가6억8천만
농가시설	· 나주시 세지면 토지670평 건물180평 감정가 1억9천 최저가 7천만
단독주택	· 서구 광천동 토지43평 건물55평 감정가 1억2천만 최저가 6천3백만 · 북구 대촌동 토지340평 건물117평 감정가 3억4천만 최저가 2억7천만
전원주택	장성군 북이면 대지180평 건물46평 최저가1억 5천만
아파트·빌라	북구 두암동 다세대빌라 63평형 1층 감정가 1억5천만 최저가 8천5백만

▶이외 상담물건, 싼토지 다수보유, 소액투자상담
광주 서구 마륵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옆 유지빌딩 501

전원주택지 급매
남구 대지동(대촌부근).
일반주거지역. 마을내 나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3,3㎡당.365,000원)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 서구 세하동 임야. 면적 3,835㎡(1160평).4m.진입로. 매매가 3.3㎡당 65만원.자연녹지. 현재 임야.
- 서구 덕흥동 제2순환도로 부채도로 접함. 답. 1,886㎡(570평). 3.3㎡당 90만원.생산녹지.
- 서구.세하동.서광주역 부근 2,148㎡(650평). 답. 3,3㎡당 72만원. 생산녹지.
- 서구 세하동 매월농원 앞 1,720㎡(520평).답. 3.3㎡당 65만원.생산녹지.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화암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구 주택2동. 매매가 1억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쌍촌동 2차선도로 나대지
서구 쌍촌동 2차선도로변 나대지 513㎡(155평). 제2종일반주거지역매매가 3.3㎡당 235만원. 카센타. 식당. 업무용빌딩 적합.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 상가건물
☆.보증금 : 10억원 월세 : 4,30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 73억원
☆.보증금 1억 월세 2,400만원(부가세별도) 오피스텔 매매가 : 32억원
☆.보증금 : 8억2천 월세 : 1,33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 28억원
☆.보증금 : 1억1천 월세 : 350만 매매가 : 6억7천

♣ 전원주택
☆.광산구 오운동 대지 : 322㎡ 건물 : 95㎡ 매매가 : 5천만원
☆.광산구 오운동 대지4,926㎡ 건물 : 66㎡ 매매가격 : 2억3천만원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 : 1,330㎡건 : 60㎡ 매매가 : 2억8천만원
☆.담양군 수북면궁산리 전원주택단지 내 대지654㎡ 매매가 : 1억2천8백만원

♣ 대지.전.답.임야
☆.치평동 대지 : 370㎡ 매매가 : 13억5천
☆.마륵동(30m도로접)대1,350㎡매매가 : 22억원
☆.압촌동 정착촌마을대 : 3,600㎡ 매매가4억9천
☆.덕흥동 생산녹지 답 434㎡ 매매가 1억7천
☆.남구 월성동농로포장도로 코너 3,500㎡ 매매가 1억3천7백만원
☆.장성남면 임야 : 13,500㎡매매가 : 4억5천만원

♣ 공장부지
☆.광산구 양동(계획관리지역)잡종지 : 11,856㎡ 매매가 : 7억9천만원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